

1.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이미 성경학당을 통하여 배우신 바대로,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이지요. 또 그 다음 날부터 7일 간의 무교절이 이어지는, 이스라엘 최대의 연휴기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 절기에 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2. 사건은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위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아마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느 나사렛 촌뜨기가 올라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올라간 예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지요.
3.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4.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환전상의 책상을 엮은 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이라는 말일까요? 그 열심 때문에 채찍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때렸다는 내쫓았다는 말입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런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5. 제자들은 단지,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을 뿐입니다.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딘가에 있었다고 떠올린 것이지요. 그러면,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단 말입니까?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훼방하는 훼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6.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의 폭력을 두둔하려 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대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는 말이지요. 시편에 그렇게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 그날 성전에서 광인처럼 채찍을 휘둘렀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광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본 것이지요.
7.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과 연결된 또 다른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방금 전의 그 사건을 우리가 “성전정화사건”이라고 부른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성전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8. 사도 요한이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차례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이 두 사건이 각각 동떨어진 각각의 사건이 아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정화와 성전파괴는, 같은 맥락에서 되어지는 일임을 말하려는 것이지요. 적어도 이런 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는 그랬을 것입니다.
9. 그래서, 이 둘을 한꺼번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그 성전정화는, 성전 파괴와 회복을 통하여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전이 청소되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다는 말이지요. 그의 십자가로 기도하는 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재건됨을 말합니다.
10. 유대인의 명절 중에, 수전절이란 날이 있습니다. 보통 하누카라고도 부르는데, 이 절기에는 아이들이 사각모양의 팽이를 가지고 놀입니다. ‘스비본’이라고 불리는 이 팽이에는 히브리어로 4가지 알파벳이 새겨져 있는데, נ(눈), ג(기멜), ה(헤이), ו(윈)이라는 이니셜입니다.

11. 이 이니셜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 짓밟혔던 성전을 되찾았다는 말이지요. 성전에 세워진 제우스 상을 치우고, 돼지가 아닌 어린 양으로, 아무 때가 아닌, 율법이 정한 때에, 그리고 이방인으로서가 아닌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12. 이 수전절의 역사가 아직 기억 속에 생생할 때에,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를 찾으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영과 진리) 드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 장소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했지요. 그건 수전절이나 하누카도 아닌, 바로 “이 때”에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무슨 예배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영단번의 제사로 드리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13. 우리가, 과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느냐?를 물으면서,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제사냐?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그건 친히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의 몸을 무너뜨림으로써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전절이란,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르사 거기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죽으심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14. 이런 배경을 마음 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요한복음과 동일한 사건기록이지요. 소위 “성전정화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단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큰 사건 중간에 삽입되어 있지요.
15. 일단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이것이 무슨 일인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배고픈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이지요. 그리고 때는 이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베다니와 성전 사이를 오가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지요.
16. 집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가실 때, 배고픈 예수님은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그 나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없었지요. 왜 없는 것입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17.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언어폭력이지요. 죄없는 나무에게 자기의 화를 퍼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장에서 보자면, 그가 성전에서 난동부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 소리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지요.
18. 그리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일이 발생합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며(막 11:15)…”** 단단히 성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배도 고픈김에, 화도 난 김에…. 이런 것을 우리는 분노조절장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9. 그리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실때, 그 무화과나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지요. 그걸 예수님께 고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20.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야기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런 말빨이 통한다는 말입니까? 아침에

내렸던 그 저주가 능력을 발휘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폭력이나 살인도 괜찮다는 말?

21.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부분, 겨자씨 비유를 떠올립니다. 믿음이 그 만큼만 있으면 무화과 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아침에 저주하면 저녁에 그대로 된다?
22.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성전정화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 성전정화사건이 이 사건 사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기적을 이루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과 밀접하다는 말입니다.
23.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 일은 예수의 죽음, 성전파괴와 관련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보면서, 그 나무가 바로 예수 자신을 비유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죽음은 성전을 정화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새롭고 산 제사, 곧 예수 자신의 죽음과 일맥상통하지요.
24. 그래서, 예수의 무화과 나무로서의 죽음이란, 첫째 아무 책임도 없는 죽음, 곧 무고한 죽음이란 말이지요. 또 둘째, 뿌리로부터 마른 죽음이란 예수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 죽음으로 완성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5. 그러면,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배고파서가 아닌 것입니다. 또 무화과가 무화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도 아니지요. 이건 성전정화와 동의어인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그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26.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려운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영생을 얻는 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바와 정확히 일맥상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7. 우리는 보통 무화과나무가 죽은 것을 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또 철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봄에 나오는 그 이른 무화과 열매 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엉뚱한 답을 얻을 뿐입니다.
28.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그 속에서 무언가 교훈이라도 나오니까요. 그러나 결단코 말씀드리건데, 무화과나무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29. 그건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예수가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죽음으로 무엇을 이루시려 하는 것인지를 말하지요. 예수께서 그리하여,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려고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30.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죽음을 읽을 때 흔히 우리는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바라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달성하기를 바라고, 그래야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구원은 그 분께서 친히 자기 몸으로 이루시는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31.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도덕을

요구하시거나, 무슨 제물을 달라고 하시거나, 혹 우리의 어떤 고행을 바라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그 은혜에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